전주국제영화제, 한국단편경쟁 선정작 발표

극영화 19편 · 다큐멘터리 1편 · 실험영화 3편 · 애니메이션 2편 총 25편… 지역공모 5편도 선정

한국단편경쟁 선정작 25편

전주국제영화제(집행위원장 민성욱 · 정준호)가 한국단편경쟁 및 지역공모 선정작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월까지 약 3개월간 한국단편경쟁에 대한 공개모집을 진행했다. 그 결과 한국단편경쟁 부문에 1,332편이 접수, 이 가운데 25편이 최종 선정됐다.

특히 한국단편경쟁 심사에는 영화평론가 겸 제24회 전주국제영화제 한국단편경쟁 상영작 '늦은 산책'을 공동 연출한 김병규 감독, 제23회 전주국제영화제 상영작인 '해마 찾기'와 '파란 나라'의 김영글 감독, 제24회 전주국제영화제 한국단편경쟁 감독상 수상작인 '유령극'의 김현정 감독, 제24회 전주국제영화제 한국경쟁 대상 수상작인 '당신으로부터'의 신동민 감독, 이보라 영화평론가, 조현나 씨네21 기자, 문석 전주국제영화제 프로그래머 등이 참여했다.

심사위원들은 "코로나19 팬데믹과 극장의 위기라는 또 다른 제약을 거치며, 단편영화 창작자들은 분명 양적 활기를 되찾은 듯하다"며, 올해 한국단편경쟁 작품들이 남긴 인상에 대해 '회복', '변형', '믿음'이라는 키워드를 제시했다.

이어 "창작자가 단편영화에 내건 각자의 믿음이 적확한 구조나 형식과 맞물리며, 정교하고 구체적인 물질성으로 스크린에 도착해, 마지막 장면에 이르기까지 긴장감 있게 유지된 작업을 옹호했다"며 "제도권 안팎에서 수많은 영화가 만들어지고, 각종 웹 플랫폼을 위한 영상 제작이 일반화되는 가운데 극장에서 상영되는 단편영화의 창조적 실천을 고민하고, 영화문화의 다른 가능성으로 번질 수 있는 실마리를 발견하려 노력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에 선정된 25편의 영화에 담긴 고민과 발견을 더 많은 관객이 공유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와 함께 도내에 주소지를 뒀거나 전북지역 학교에 재학 중인 감독, 제작자의 작품, 혹은 전북지역에서 50% 이상 로케이션 한 작품이면 지원 가능했던 지역공모 부문에는 총 47편이 출품됐다. 이 중 5편이 선정됐다. 선정작은 김규민 감독의 '가계', 오재욱 감독의 '너에게 닿기를', 장재우 감독의 '소용돌이', 김소라 감독의 '언젠가 알게 될 거야', 박채은 감독의 '자전거 도둑' 등이다. 이 중 '너에게 닿기를'은 한국단편경쟁으로, 나머지 4편은 코리아시네마로 각각 상영된다.

한편, 제25회 전주국제영화제는 오는 5월 1~10일까지 열흘간 전주 영화의거리를 비롯한 전주시 일원에서 개최된다. /장은성 기자

국립민속국악원, 일반인 국악강좌 수강생 모집

국립민속국악원(원장 김중현)은 2024년 4월부터 11월까지 진행되는 일반인 대상 국악강좌 '청출어람'의 수강생을 모집한다.

이 프로그램은 국악의 접근성을 높이고, 모든 국민이 국악을 일상에서 쉽게 즐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기획되었으며, 강좌는 대금, 해금, 판소리, 가야금, 가야금병창, 한국무용, 고법 등을 포함한 총 10개 과정으로 구성되었고, 일부 과정은 국악에 초년생을 위해 초급 및 중급 수준의 강좌를 포함하고 있다.

수강료는 96,000원(1회당 4,000원)이며, 기초생활수급자, 법정차상위계층, 장애인, 자활근로자, 우선돌봄 가구는 교육비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수업은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저녁 7시부터 9시까지 진행되며, 오후 3시부터 5시까지 판소리 과정이 추가로 신설된다.

수강 신청은 오는 21일부터 29일까지 국립민속국악원 누리집을 통해 회원가입 후 신청이 가능하며, 과정별로 20명씩, 총 200명을 선착순으로 모집하고, 자세한 사항은 국립민속국악원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남원=김기두 기자

전북여성새일센터, 전북지역 일자리담당자 직무능력 향상교육

전북광역여성새로일하기센터(전정희원장)는 2024년 전북지역 일자리담당자 직무능력 향상교육을 실시한다고 지난 15일 밝혔다.

직무능력 향상교육은 새일센터 취 · 창업 전문상담사 80여 명을 대상으로 총 7회 실시된다.

이번 교육은 사전수요조사 결과에 기반한 직무 · 경력 · 사업별 현장 맞춤형교육과정으로 진행된다. 종사자들의 근무연수에 따른 차별화된 교육으로 관련분야 역량강화 및 취업지원 서비스의 전문적 체계화를 목적에 뒀다.

교육 내용은 △2024년 사업장 고용 지원정책 △사업평가보고서 작성 △AI기반 기업분석과 구직지원 △취업알선 실무자를 위한 노동법 이해 △리더의 신뢰구축 △심리진단을 활용한 내담자 사례관리 등이다.

특히 2022년 (사)전국고용협회서비스와의 협약을 통해 고용분야 전문강사 섭외 및 현장실무 중심으로 운영됐다.

자세한 내용은 취업지원팀(063-254-3715)으로 문의하면 된다. /장은성 기자

예술인파견지원사업 예술로 참여 기업 · 기관 공모

전북특별자치도문화관광재단, 29일까지 접수… 7개소 모집

전북특별자치도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이경윤)은 지난 15일부터 15일 간 '2024 예술인파견지원사업 예술로 지역사업-예술로 180°'에 참여 할 기업 · 기관(마을)을 공개모집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문화체육관광부 ·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국비 공모사업으로 재단은 5년차 선정됐다. 올해는 3억 여 만원을 지원 받아 참여기업 · 기관(마을) 7개소를 모집할 계획이다.

이는 예술로에 참여하는 6개월 180시간 동안 예술의 영향력이 180도 성장하고 변화 하자는 의미에서 이름 지어졌다. 예술인의 사회적 가치 확장을 위해 다양한 예술직무영역을 개발하고, 사회(기업 · 기관 · 마을)와 협업을 기반한 직무를 제공함으로써 적극적 예술인 복지를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지난해 이 사업에 도내 10개 기관 · 기업이 참여, 특히 하이트진로(주)가 공로상을 받았고, 국립공원내장산 생태탐방원이 우수사례로 장관 표창을 수상한 바가 있다.

신청 대상은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을 소재한 도내 기업 · 기관(마을)으로, 오는 29일까지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재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재단 문화예술본부 임진아 본부장은 "예술로 180도 사업을 통해 예술 활동 기회를 제공하고, 예술의 가치를 확산시킬 수 있길 바란다"며 "도내 기업 · 기관(마을)의 조직문화 개선 및 예술성 확보와 ESG 기업경영 철학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장은성 기자

익산시, 역사문화도시로 '우뚝'

문화도시 조성사업 성과 평가 2년 연속 '우수도시' 선정

문화도시 요가 사진

익산시가 고유한 문화적 가치를 활용해 지역 발전 및 경제 성장에 기여하며 역사문화도시로 입지를 탄탄히 하고 있다.

시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24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3년 문화도시 조성사업 성과 평가'에서 '우수도시'로 선정됐다고 지난 15일 밝혔다.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우수도시에 선정되며 올해도 문화도시 조성사업비로 총 30억 원의 예산을 확보했다.

익산시는 '사람이 보석이다'라는 고유한 문화적 가치가 반영된 브랜딩을 창출해 역사문화도시로서 정체성을 확립했다. 또한 다양한 역사문화자원을 재조명해 지역의 지속 가능한 발전 및 경제 성장의 토대를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익산의 사람 · 자원 · 공간이 보석이라는 가치를 알리기 위해 주민들이 직접 마을의 문화 · 사람 · 삶 등을 담은 '마을 이야기책' 발간, 익산의 역사와 현재를 탐방하는 '익산학교', 보석산업단지에서 보물찾기 축제 개최 등의 활동을 펼쳐왔다.

아울러 유튜브 '이리랑익산' 운영, 청소년의 아이디어로 문화유산 홍보영상 및 굿즈를 제작한 '씽(Think)어게인' 등을 통해 지역의 콘텐츠들을 알려왔다.

문화재청, 산업통상자원부 등 부처 간 사업을 연계하고 문화도시 사업의 지속성을 위해 정책사업과 연결한 노력도 우수사례로 인정받았다.

문화재청 사업인 '솜리근대역사문화공간'의 유휴공간을 예술인과 시민을 위한 복합문화공간으로 조성했다. 또한 시민 참여 프로그램을 지원해 타지 예술인 및 생활 인구 유치에 기여했다.

특히 법정문화도시 사업 기간 종료 후에도 문화도시 사업의 지속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 마련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익산문화관광재단은 주민 참여 프로그램인 △문화도시 삼삼오오 △문화마을 29 △1시민 1미술 프로젝트 등을 자체 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논의 중이다.

성과평가위원 중 한 명은 "타 부처 및 익산시 정책사업과 연계해 추진하는 사업들이 구체적으로 잘 진행되고 있다"며 "문화도시 사업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있는 것은 벤치마킹해야 할 사례이다"고 평했다.

정헌율 익산시장은 "사람이 보석이 되는 문화도시 익산이라는 비전을 가지고 2년 동안 성공적으로 추진해 왔다"며 "앞으로도 문화에 대한 시민 의견을 반영하고 시민뿐만 아니라 생활 인구도 행복한 살기 좋은 익산시가 되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익산=이재춘 기자

전북의 역사 · 문화 유산

전주매일 캠페인

옛 전북의 구심점

전라감영

전라감영은 전라감사가 근무하는 관이라는 뜻으로, '완영'이라고도 불렀다. 완영이란 전주의 옛 지명 '완산'에서 나온 말이다.

조선시대 전라도는 지금의 전라남 · 북도와 제주도까지 포함한 지역으로, 이 모두를 총괄한 지방통치관서 전라감영은 조선왕조 500여년 내내 전주에 자리했다.

일제강점기에 들어와 전라감영 자리에 전북도청이 들어섰고, 2005년까지 전북 도정의 중심이 되었다.

전북도청은 행정만이 아니라 전북의 역사와 문화를 끌어온 전북의 구심점이자 견인차였다.

선화당

전라감영의 재창조

전라감영 복원 논의는 2005년 전북도청이 신시가지로 이전하면서 본격화돼, 2009년 전라감영 복원추진위원회가 구성됐고, 2014년 전라감영 복원 재창조위원회가 결성됐다.

복원을 앞두고 10여년간 계속된 지난한 논의의 핵심은 복원의 범위와 옛 전북도청의 근대문화유산으로서의 가치 문제였다.

복원 범위는 전체복원, 부분복원, 상징복원으로 나뉘었고, 옛 전북도청의 가치는 감영 터의 중층적 역사에서 어느 역사를 택하느냐 하는 문제였다.

결국 감영의 중심건물인 감사의 집무처인 선화당을 비롯한 전라감사 영역을 복원하는 것으로 결정돼 2015년 마침내 옛 전북도청을 철거하고 2020년 동편 부지에 감영 건물을 복원했다.

〈글: 전주시 제공〉

관풍각

내아